

해석

기술적 변화는 거의 확실한 모습으로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새로운 도구들이 대개 기존의 노동·의사소통·문제 해결 체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에 혁명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 처음에는 효율성이나 조정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이러한 혁신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지속적인 진보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혁신이 가속화되면 사회 제도는 종종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결과 공유된 규범이 안정되기 전에 경제 구조, 상호작용 방식, 윤리적 기대가 변화하게 된다. 기술은 흔히 중립적인 힘으로 간주되지만, 그 결과는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의 속도와 사회적 적응 사이의 이러한 괴리 속에서 공동체는 기존의 관행을 재고하게 되며, 결국 누가 진정으로 혜택을 얻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둘러싼 끊임없는 -----만을 만들어 낸다.

정답 ② questions

해설

이 글에서 새로운 기술은 처음부터 혁명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실용적 대응으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 혁신이 가속화되면 사회는 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 그 결과 경제 구조, 사회적 상호작용, 윤리적 기준이 공유된 규범이 정착되기 전에 먼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낳는 결과는 확실성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누가 혜택을 얻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둘러싼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문, 불확실)이다. 빈칸에는 이러한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는 questions가 들어가며, 이는 기술과 사회의 불균형이 해결된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문을 생산한다는 글의 핵심 논지를 압축적으로 반영한다.

오답 해설

① certainty

이 글의 핵심은 기술 변화가 사회에 명확한 방향이나 확실한 결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기술과 사회의 괴리가 확실성을 낳는다는 해석은 글의 전개와 정반대이며, 문맥상 성립하지 않는다.

③ reflection

reflection은 개인이나 집단의 내적 성찰이나 숙고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문은 기술 변화로 인해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논쟁과 문제 제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조용한 성찰보다는 갈등과 질문이 반복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④ distortion

distortion은 기존의 사실이나 구조가 왜곡되거나 변형된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글에서는 기술 발전이 '왜곡'을 만들어 낸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누가 혜택을 얻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둘러싼 판단이 계속해서 제기된다고 설명한다. 즉, 문제의 핵심은 결과의 왜곡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불확실성이다.

⑤ predictions

predictions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의미하지만, 글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강조한다. 기술 변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합의된 전망이 형성되지 못한 채, 이해관계에 대한 질문만 반복된다는 점에서 '예측'은 문맥에 반대되는 개념이다